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식구들과 한 자리에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올리고 산소에 성묘를 다녀오며 가족들이 서로 만나 풍요로운 결실을 즐기면서 잘 보내셨으리라 짐작 됩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는 좋든 나쁘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바탕으로 한 신앙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우리들은 서로 다르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다른 집단들을 형성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역시 때로는 밀접하게, 때로는 느슨하게 연결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 요한은 편을 나누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질책을 당합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막지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마르 9,38-40)고 하시면서 편 나눔으로

인한 집단 이기주의를 단호히 나무라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복음의 가르침은 일치와 화합을 도모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분열의 요소를 제거하여 일치를 이루고 반목의 뿌리를 뽑아내어 화합을 모색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와 내가 화합하고 일치를 도모하는 공동체 삶을 사는데 짐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런 요소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독서에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은 일꾼들에게 줄 품삯을 가로채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죄인들을 단죄하니 그들의 재물은 썩었다(야고 5,1-6)고 경고를 합니다.

또한 1티모테오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 때문에 신앙을 잃고 방황하며 아픔을 겪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손발이 죄 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리고, 또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의 원인을 과감하게 없애라는 가르침입니다. 직업이나 이력이나 습관이, 또는 취미나 오락이 불화를 가져오며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든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들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죄짓는 일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가 하면, 나쁜 소문을 내고 헐뜯는 버릇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웃에게 심한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말고 또 남에게 죄를 짓게 하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죄 지을 기회를 원천 봉쇄 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나의 작은 언행이 남을 아프게 하거나 죄 짓게 한다면 고쳐야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천 본당 주임신부 조상래 다미아노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인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모든 사람이 저마다 하느님의 선물을 가득히 받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알게 해 주시도록 청하며 이 전례를 시작합시다.

입당성가 : 144번 '주의 얼이'

본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민수기 11장 25절-29절

안 내 : 주님께서는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에게 있는 영을 일흔 명의 원로들에게도 내려 주십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 당신 영을 모든 이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도와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협력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2독서 : 야고보서 5장 1절-6절

안 내 :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에게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으니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울라고 말합니다.

묵 상 :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를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9장 38절-43절.45절.47절-48절

강　　론 :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1-2쪽)

예물준비성가 :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179번 '주의 사랑 전하리'

영성체 후 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죄 중에 큰 죄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나 자신으로 향하는 작은 사랑을 보다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지 않은 죄입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공동체만 문제없으면 그만이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치닫는 것은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세상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세상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신앙인으로 거듭 나야 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3번 '순교자 찬가'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22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기증 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0월 7일(연중 제27주일) 의성 본당
· 10월 14일(연중 제28주일) 모전동 본당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10월 13일, 27일, 11월 3일
· 장소 : 의성성당

■ 열린성경강좌 6

· 일시 : 10월 15일(월)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안계 본당 주임)

▣ 교구장배 게이트볼 대회

· 일시 : 10월 9일(화) 09:00~16:00
· 장소 : 안동시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 전용구장
· 신청 : 10월1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참가비 : 팀당 8만원(점심 및 간식)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0월 22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M.E 제40주년 가족모임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ME주말을 수강한 사제, 수도자, 부부
· 문의 : 임효균(제노비오) 010-3528-2370

▣ 1일 영성피정

· 일시 : 10월 20일(토) 10:00~17:00
· 장소 : 계림동 성당
· 강사 : 김현조 스테파노
· 회비 : 5천원
·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10-8447-0111

▣ 은총 제1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11월15일(목) 16:00~18일(주일) 17:00
[3박 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만원
· 접수마감 : 11월 2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 받은 분,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 :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가톨릭 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 2차 모집

· 수시 2차 모집 : 11월6일~11월20일
· 입학문의 : 교무입학처 054)851-3021, 3023
http://ipsi.csj.ac.kr

▣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 일시 : 11월17일(토) 11:00~18일(주일) 16:00
· 장소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회비 : 5만원
· 문의 : 음성꽃동네 010-5490-5345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 1787년

○ 정약전이 책을 읽다가 '평신도 성직제(平信徒聖職制)가 독성죄(瀆聖罪)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다.

◆ 1790년

►**10월 11일** 윤유일과 우(禹)요한세자가 성절사(聖節使) 일행을 따라 귀국하다. 이때 제사(祭祀)를 금지하는 구베아 주교의 사목서한을 가지고 오다.

이때 교황 글레멘스 11세 칙서 'Ex illa die(1715년 3월 10일자)'와 교황 베네딕도 14세 칙서 'Ex Que singulari(1742년 7월 11일)'를 바탕으로 동양 전통의 공자 숭배와 조상 제사(祖上祭祀)에 대한 금지령(禁止令)을 조선신자들에게 전하다.

◆ 1794년

►**12월 3일**(양력 1795년 1월 3일) 청나라 사람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벨로조〈아가백〉) 신부가 지황(池璜, 사바)과 윤유일(尹有一, 바오로), 황심(黃沁, 토마스 1756~1801)을 만나 자정(子正)경 의주를 통해 조선에 입국하다. 이 당시 천주교 신자 수는 황해도와 경상도 두 지방을 제외하고 4,000명 정도였다.

◆ 1797년

○ 황사영이 상주의 이복운(1776~1802)에게 전교하러 왔으나 실패하다.

◆ 1798년

○ 봉화의 우련밭에 김종한(안드레아)이 충청도 솔뫼에서 와 살다.

◆ 1800년 경

►**2월 중순경** 황사영(黃嗣永)이 박해를 피해 서울을 떠나 경북 예천에 머물다가, 봉화 곰직이에 얼마 동안 머문 후 다시 배론으로 가다.

◆ 1801년 신유박해 시대

○ 강성철, 형조에서 의성읍으로 유배, 유배가기 전에 선종하다.

○ 복점(福占), 형조에서 영덕군 영해읍으로 유배되다.

○ 충주사람으로 권일신의 조카인 권상익이 영덕군 영덕읍으로 유배되다.
○ 충주사람 이조이가 천주교 교리를 전해받은 죄로 영천<永川, 지금의 영주>으로 유배되다.
○ 김만업이 할아버지의 천주교 교리를 이어받아 익힌 죄로 충청도 면천에서 상주로 귀양오다.
○ 전주사람 김석룡이 천주교 교리를 배운 죄로 풍기로 유배되고, 12월에 선종하다.
○ 소백산, 태백산, 예천 등지에 교우촌 형성하다.
○ 상주 상서면 배목리〈현 상주시 이안면 양범리 배미기〉에 살던 서광수의 5남 서유도가 신유박해를 피해 문경 가은의 한실로 피난한 것으로 추정되다.
○ 상주시 이안면의 배모기 . 사실 . 저음리와 상주시 화서면의 앵무동과 앵무동의 북쪽 산너머인 충북의 멍애목 . 상주시 모동면의 산막 터 . 오도재 . 보문과 상주시 청리의 율리〈밤밭〉 등지에 교우촌이 형성되다.
○ 박해(辛酉迫害)로 박수광(1770~1837) 일가 한양에서 의성 쌍호로 피난 오다.
○ 한양에서 의성으로 귀양을 온 강성철 사망하다.
○ 상주 이안면 은재에 살던 김윤덕(金允德 아가다 막달레나)이 청송 노래산으로 피난하다.
※ 이 때 충청도 전라도에서 피난 온 신자들에 의해 노래리가 교우 촌이 된 것으로 추정되다. 당시 노래산 뿐 아니라 보현산 아래 현서면 잿골, 모래실 등에도 신자들이 살았다고 전한다.

◆ 1813년
○서유도의 부인 전주 이씨(李氏)가 문경 한실에 피난해 살다가 죽다.

◆ 1814년
○ 6월 19일 경상도 관찰사 이존수가 최봉한(프란치스코)의 정상을 조사하고 장계하기를 '… 웬 추악한 무리들이 청송, 영양, 진보의 심산 벽촌에 잠입하여 문득 소굴을 이루고 스스로 전수하고 익혀서 온 마을이 그르치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러운 일 … '이라고 하다.
►**2월** 충청 . 강원도에 천주교 탄압으로 을해교난(乙亥敎難)이 시작되다.
►**2월 22일** (양력 4월 1일 토요일) 1801년 신유박해 때 경상도로 피난한 신자 중 청송 노래산 교우 촌에서 구걸(求乞)하며 살던 전지수의 밀고로 포졸들이 노래산을 급습하여 부활 대축일 첨례를 지내던 신자 고성운(高聖云, 요셉), 고성대(高聖大, 베드로) 형제와 서석봉(徐碩奉, 안드레아)과 그의 재혼(再婚)한 아내 구성열(具性悅, 바르바라, 혹 최성렬), 그의 전 처(前妻) 사위인 홍주 다래골(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사람으로 공주 무성산에서 살다가 노래산으로 이주한 최봉한(崔奉漢, 여옥, 兒名은 진강, 프란치스코), 상주(尙州) 이안 은재 사람 김윤덕(金允德, 아가다 막달레나)과, 반신불구(半身不具)라고 체포하지 않자 애원하여 체포된 충청도 청양 출신 김시우(알렉시오)등 26명이 체포되어 청송을 거쳐 경주로 압송되다.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고모님이 두 분이셨는데 어릴 때 친정 나들이가 잦았다. 보통 열흘이나 보름 정도 묵었는데 성격만큼이나 두 분이 만들어가는 분위기도 판이했다. 남들 보기에 부족한 거 하나 없을 것 같은 큰 고모는 매사에 근심 걱정이었다. 반면 청상이 되어 시부모 아래 농사일에 적잖이 힘들었을 작은 고모는 늘 밝고 낙천적이었다. 큰고모로 하여 안절부절하고 더 적막해지던 집안 분위기가 작은 고모가 오면 모처럼 웃음이 돌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되곤 했다.

큰고모는 환갑을 갓지나 돌아가시고 작은 고모는 아흔이 넘었는데 아직 정정하시다. 두 분을 생각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있다. 문제는 처지나 환경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과 행동을 결정한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주 내 안을 들여다볼 일이다.

어느 날 마귀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마주 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하고 물으시자, 그가 “군대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루카8,30). 내 안에도 우리를 성가시게 만드는 수많은 마귀들이 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놈들이 나를 흔든다. 그럴 때마다 그냥 휘둘리거나 반응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서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리고 물어보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어제 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 할머니’들의 수기 심사가 있었다. 사전에 예심을 거쳐 올라온 55편을 메일로 받았다. 작품마다 자부심과 열정이 진하게 배여 있어서 한 편도 대충 넘길 수 없었다. 그래도 완성도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서 어렵지 않게 우수작 10편을 골라서 갔다. 당연히 다른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일치하리라고 믿었다. 막상 심사가 시작되자 다섯 명의 의견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예를 들면 내가 1등으로 정한 작품을 우수작에 포함시킨 이는 한 명뿐이었다.

속에서 풍랑이 일더니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올라왔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다 눈을 감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잠시 뒤 풀죽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만입니다.” 뒤이어 작은 음성이 따라왔다. “미움입니다.” 아직도 이놈들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니?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다니?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다.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까지.

생각을 바꾸자 마음이 편해졌다. 다 나름대로 기준과 안목이 있을 것이다. 잘 들어보면 이해 못할 의견은 없다. 내 관점과 태도가 문제일 뿐이다. 내가 고집을 버리자 심사는 쉽게 마무리 되었고 서로 기분 좋게 헤어졌다.

사소한 것도 큰고모는 크게 받아들이는데 아주 난처한 일도 작은고모에게 가져가면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곤 했다. 작은 고모는 언제나 반갑고 편했다. 곁에 있는 이를 편하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사랑 아닐까!